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6.2

미 증시, 물가 안정 기대 속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부각되며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동결 기대가 충돌하며 상승

•미 증시는 장 초반 차익 매물로 약세를 보였으나 전일 크게 하락했던 엔비디아(+5.12%)가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기업들이 호재성 재료로 상승하자 약세폭은 제한. 이런 가운데 고용과 제조업지표 발표 후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가 강화되자 상승 전환 후 그 폭을 확대. 더불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전일에 이어 6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점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단기 금리가 하락하자 지수 상승세는 유지.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재차 유입된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다우 +0.47%, 나스닥 +1.28%, S&P500 +0.99%, 러셀2000 +1.05%)

특징 종목: 엔비디아, 중국 기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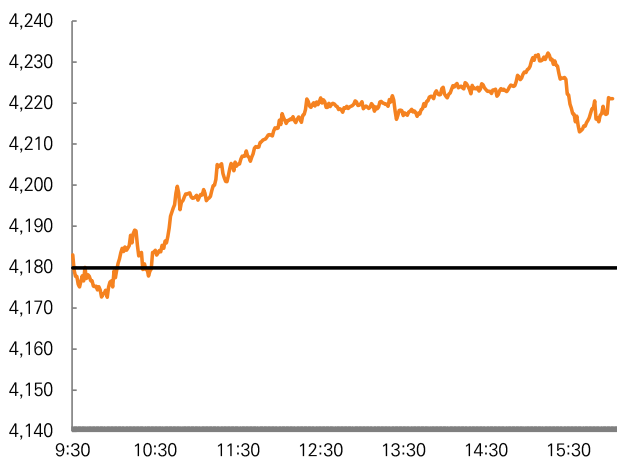
•엔비디아(+5.12%)는 전일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한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GQG 파트너스가 1분기에 2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기인. 더불어 CIO가 '그 이후에도 의미 있게 늘렸다' 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테슬라(+1.76%)는 중국 방문 중 중국 고위층과의 만남이 이어지자 중국에서의 사업 기대 심리가 높아져 상승. 알리바바(+4.34%)를 비롯해 바이두(+6.46%)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 회계 감사를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큰 폭으로 상승

한국 증시 전망: 원화 강세 기조 속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1.56%, MSCI 신흥 지수 ETF는 1.7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1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8%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가 확대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화가 약세폭을 확대했으며 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 이에 힘입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도 1.05%, 다우 운송지수도 1.24%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와 관계가 큰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도 긍정적. 다만, 여전히 이어지는 차익 실현 매물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원화 강세 기조 속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69.17	-0.31	상해종합	3,204.64	+0.00
KOSDAQ	863.78	+0.80	홍콩항셍	18,216.91	-0.10
DOW	33,061.57	+0.47	베트남	1,078.39	+0.30
NASDAQ	13,100.98	+1.28	유로스톡스 50	4,257.61	+0.94
S&P 500	4,221.02	+0.99	영국	7,490.27	+0.59
캐나다	19,672.25	+0.51	독일	15,853.66	+1.21
일본	31,148.01	+0.84	프랑스	7,137.43	+0.5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고용과 제조업지표 그리고 연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의회를 통과하며 관련 이슈가 사라지자 시장은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와 연준 정책 등에 주목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5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7.1보다 둔화된 46.9로 발표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임. 특히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신규주문이 3.1p 하락해 우려를 확대. 그렇지만 고용지수 기준선인 50을 넘어서고 물가지수는 9p나 하락해 물가와 고용 안정 기대를 높임.

이런 가운데 미국 4월 건설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를 크게 상회한 1.2% 증가.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의미하는 비주거용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1.9% 증가. 대체로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편, 미국 5월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29.1만 건을 하회한 27.8만 건을 기록했으나 시장이 예상했던 16만 건을 크게 상회. 특히 레저 및 접객업이 20.8만 건 증가하며 이를 주도. 그렇지만 금융(-3.5만 건)과 제조업(-4.8만 건), IT(-1.5만 건) 등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감소해 질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아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지난주 발표된 23만 건을 소폭 상회한 23.2만 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유지. 연속 신청 건수도 178.9만 건에서 179.5만 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미국 5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6만 6,995건에서 8만 89건으로 증가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임금을 보면 이직자의 임금인상률은 지난달 전년 대비 14.2%에서 13.2%로 둔화된데 이어 이번에도 12.1%를 기록. 기존 직원 임금인상률도 6.9%에서 지난달 6.7%로 둔화된 데 이어 이번에도 6.5%로 둔화.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 견조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10명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수치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미국 5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6만 6,995건에서 8만 89건으로 증가. 기술업종이 가장 많이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교육, 유틸리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올해 해고가 증가.

결국 경제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 고용을 줄이고 있어 현재 고용은 견조할 수 있으나, 하반기 고용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더불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속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있고, 오프라인 활동 증가로 관련 업종의 고용은 지속되고 있어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로 6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 여기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전일에 이어 6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자 CME FedWatch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78%까지 상승.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폭을 확대했으며, 국채 금리도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폭을 확대.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비디아, 중국 기업 강세

전일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던 엔비디아(+5.12%)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GQG 파트너스가 1분기에 2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상승. 더불어 CIO가 ‘그 이후에도 의미 있게 늘렸다’ 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AI 관련 MS(+1.28%), 알파벳(+0.69%), 아마존(+1.82%), 메타(+2.98%)도 동반 상승. 특히 메타는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된 MR 헤드셋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상승폭이 컸음. 그러나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한 C3.AI(-13.22%)는 큰 폭으로 하락.

테슬라(+1.76%)는 중국 방문 중 중국 고위층과의 만남이 이어지자 중국에서의 사업 기대 심리가 높아져 상승. 알리바바(+4.34%)를 비롯해 핀둬둬(+5.77%), 바이두(+6.46%), 징둥닷컴(+5.92%)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 회계 감사를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큰 폭으로 상승. 엑스모빌(+1.15%)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구리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3.29%)도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

반면, 달러 제너럴(-19.51%)은 1분기 손실에 이어 가이던스도 거시 경제 환경을 언급하며 하향 조정하자 급락. 달러 트리(-3.94%)도 하락. 세일스포스(-4.69%)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 향상이 없었다는 점에 실망 매물 출회. 애브비(-3.28%)는 투자사가 스타트업 기업과 제휴해 애브비의 주력 항염증제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발표하자 하락. 암젠(-2.89%)도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5	대형 가치주 ETF (IVE)	+0.81
클린테크 ETF (CTEC)	+2.74	중형 가치주 ETF (IWS)	+0.68
소매업체 ETF (XLY)	+1.18	소형 가치주 ETF (IWN)	+0.96
온라인소매 ETF (EBIZ)	+1.69	대형 성장주 ETF (VUG)	+1.22
미국 인프라 ETF (PAVE)	+1.21	중형 성장주 ETF (IWP)	+1.09
핀테크 ETF (FINX)	+0.87	소형 성장주 ETF (IWO)	+1.1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11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7
클라우드 ETF (CLOU)	+0.3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99
사이버보안 ETF (BUG)	-1.3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84	미국 국채 ETF (IEF)	+0.2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76	하이일드 ETF (JNK)	+0.67
바이오섹터 ETF (IBB)	+0.39	신흥국 채권 ETF (EMBD)	+0.40
로봇&AI ETF (BOTZ)	+1.98	물가연동채 ETF (TIP)	+0.16
반도체 ETF (SMH)	+1.5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934.83	+1.33	+8.16	+10.55
산업재	827.19	+1.26	+0.69	-2.77
소재	476.86	+1.24	-0.46	-5.92
에너지	592.86	+1.23	-3.82	-8.36
경기소비재	1,202.50	+1.22	+2.92	+5.47
커뮤니케이션	213.08	+1.15	+3.20	+7.51
금융	532.03	+1.01	+0.62	-3.26
헬스케어	1,496.25	+0.67	-0.38	-4.36
부동산	225.83	+0.03	+2.42	-3.72
필수소비재	756.44	-0.09	-1.51	-6.37
유틸리티	325.40	-0.78	-1.69	-7.2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원화 강세 기조 속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1.56%, MSCI 신흥 지수 ETF는 1.7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1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8%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최근 강세를 이어왔던 종목군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자 하락 출발. 여기에 5월 한국 수출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된 점도 영향. 그렇지만, 달러/원 환율이 5.60원 하락한 1,321.60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강세를 보이자 하락은 제한. 이 영향으로 KOSPI는 0.31% 하락. 다만, KOSDAQ은 일부 엔터와 바이오 종목군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0.80%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가 확대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화가 약세폭을 확대했으며 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 이에 힘입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한편, 엔비디아가 일부 투자회사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도 1.05%, 다우 운송지수도 1.24%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와 관계가 큰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도 긍정적. 여기에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중국 기업 회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마-중 갈등 완화 기대를 높이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 또한 긍정적. 이는 홍콩 증시 강세를 견인할 수 있어 주목. 다만, 여전히 이어지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는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원화 강세 기조 속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수 안정, 제조업지수 둔화

미국 5월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29.1만 건을 하회한 27.8만 건을 기록했으나 시장이 예상했던 16만 건을 크게 상회. 특히 레저 및 접객업이 20.8만 건 증가하며 이를 주도. 그렇지만 금융과 제조업, IT 등은 감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3만 건을 소폭 상회한 23.2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했던 23.5만 건은 하회. 연속 신청 건수는 178.9만 건에서 179.5만 건으로 증가.

미국 5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6만 6,995건에서 8만 89건으로 증가.

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7.1에서 둔화된 46.9로 발표. 세부적으로 신규주문(45.7→42.6), 주문잔고(43.1→37.5), 물가지수(53.2→44.2)가 급감한 가운데 생산지수(48.9→51.1), 고용지수(50.2→51.4)는 개선.

미국 4월 건설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나 예상했던 0.2% 증가를 크게 상회한 1.2% 증가. 전년 대비로도 7.2% 증가. 특히 비주거 건설지출이 1.9% 증가.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단기 국채 금리, 물가 안정 속 금리 동결 기대로 하락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한편, EIA는 지난 주 원유재고가 예상했던 140만 배럴 감소와 달리 45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영향은 제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향후 수요 증가 기대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정유시설 가동률이 1.4% 상승한 점도 영향.

달러화는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 중 물가지수가 크게 둔화되는 등 물가가 안정을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더불어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증가했으나 임금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자 향후 물가 안정 기대를 높인 점도 영향. 유로화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0%에서 6.1%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에 ECB는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ISM 제조업지수 세부항목의 물가지수의 안정, ADP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 등으로 하락. 임금 상승률 둔화 기조 지속은 임금이 향후 인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채금리 하락 요인. 특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여전히 6월 금리 동결을 주장하자 단기 금리의 하락폭이 확대.

금은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 또한 달러 약세 및 건조한 미국 건설 지출 영향으로 상승. 곡물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건조한 가운데 밀과 대두는 중서부 주요 작황지에 건조한 날씨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이는 수확량 감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옥수수는 에탄올 공장에서의 가격 상승 상승으로 수요가 일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전환.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66%, 철근은 0.34%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0.10	+2.98	-5.68	Dollar Index	103.560	-0.74	-0.66
브렌트유	74.28	+2.34	-2.47	EUR/USD	1.0761	+0.67	+0.34
천연가스	2.16	-4.37	-9.63	USD/JPY	138.82	-0.37	-0.89
금	1,995.50	+0.66	+0.61	GBP/USD	1.2526	+0.68	+1.66
은	23.99	+1.64	+3.16	USD/CHF	0.9060	-0.52	+0.03
알루미늄	2,282.50	+1.63	+3.51	AUD/USD	0.6573	+1.08	+1.05
전기동	8,245.50	+1.93	+4.35	USD/CAD	1.3450	-0.91	-1.41
아연	2,267.00	+0.82	-1.99	USD/RUB	81.0001	-0.33	+1.20
옥수수	592.50	-0.08	+1.06	USD/BRL	5.0124	-0.85	-0.58
밀	610.75	+2.86	+0.82	USD/CNH	7.1052	-0.20	+0.19
대두	1,329.50	+2.10	+0.19	USD/KRW	1,321.60	-0.42	+0.32
커피	183.05	+2.46	-2.63	USD/KRW NDF1M	1,311.13	-0.67	-1.3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99	-4.38	-21.86	스페인	3.285	-4.70	-30.60
한국	3.550	+3.00	-4.50	포르투갈	2.973	-5.00	-30.80
일본	0.424	-1.20	-0.30	그리스	3.728	-4.90	-17.80
독일	2.249	-3.30	-27.30	이탈리아	4.088	+0.70	-31.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